광주비엔날레 재단의 정책연구실이 열악한 대우 등의 이유로 적임자를 찾지 못해 신설이 지연되고 있다. 사진은 광주시 북구 중외공원내 비엔날레 전시관 전경.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비엔날레 정책연구실 언제 문 여나…

실장 1·연구원 2명 '싱크탱크' 기대
업무량에 비해 낮은 대우가 '걸림돌'
7개월째 적임자 못찾아 신설 늦어져

예술 총감독 선임 등 광주비엔날레 재단(이하 재단)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게 될 정책연구실(이하 연구실)이 극심한 인력난으로 7개월이 지나도록 신설되지 못하고 있다.

재단은 지난 2월부터 지역 미술계를 대상으로 연구실의 수장인 연구실장(재단1급·일반공무원 5급 상당)을 비공개 방식으로 물색했지만 외국어 능력과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갖춘 적임자를 찾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재단은 최근 서울에서 활동하는 미술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연구실장의 역할과 위상에 비해 대우가 열악해 후보들이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실장 영입이 차질을 빚자 재단은 1일 모집공고 발표를 통해 "연구원 2명을 우선 공개채용 방식으로 뽑고 연구실장은 연구원 모집이 마무리 되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선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실은 지난해 '신정아 가짜박사 파문'을 계기로 추진된 재단 개혁의 핵심 카드로 연구실장 1명, 연구원 2명으로 구성된다. 재단의 시스템 부재로 '가짜박사'를 총감독으로 선임했던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전문가 그룹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 예술 감독을 뽑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광주비엔날레의 정체성과 장기발전 전략 수립을 통해 세계 3대 비엔날레로 거듭나는 명실상부한 싱크탱크로 키운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재단은 외국어 능력과 국제 미술계 네트워크를 갖춘 미술 전문가를 선임하기 위해 인선 작업을 벌여왔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데에는 국내에 이들 조건을 충족할 만한 인사가 많지 않고, 또 찾아낸다고 해도 대우가 낮아 중량감 있는 인재를 뽑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재단이 서울 지역 '후보'들을 대상으로 적임자를 물색했지만 업무량에 비해 낮은 대우가 걸림돌이 됐다. 실제로 재단의 연구실장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일부 전문가는 그에 걸맞는 연봉 인상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제의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실장과 함께 공개채용에 나선 연구원(재단 5급·일반공무원 8급 상당)의 초임 기본급 역시 90만원에도 못 미쳐 열악해 구인난이 예상된다. 우수 인재들이 국내 대기업 수준에 못미치는 연구원에 지원하게 될 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연구실장 선임이 난관에 봉착하면서 일각에서는 재단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연구실이 자칫 용두사미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우수인재들을 영입하지 못할 경우 당초 설립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단의 한 이사는 "주어진 업무에 비해 대우가 낮으면 누가 지원하겠냐"면서 "예산 타령에 앞서 유능한 인재를 찾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1일 발표된 재단의 연구원 공채 일정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18~22일), 필기시험(25일·영어 회화 포함), 면접시험(11월1일)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3급 연구원은 미술이나 문화 이론을 전공한 4년제 대학 관련학과를 나와야 하고, 5급 연구원은 미술 이론 또는 공간 디자인을 전공한 4년제 대학 관련학과 출신이면 된다. 문의 062-608-4211.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한국화가 김대원 '마니프 국제아트페어' 참여

'회상' 시리즈 등 10여점 출품

'기억 II'

중진 한국화가 김대원(조선대학교 부총장)씨가 오는 13일까지 서울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리는 '마니프(MANIF) 서울국제아트페어'에 참여한다.

김씨는 이번 아트페어에 전통 한국화의 기법과 색채의 틀을 벗어나 강렬한 채색과 추상성을 강조한 작품 10여점을 출품했다.

수묵과 담채가 어우러져 색의 다채로운 아름다움이 강조됐고, 물처럼 흐르는 선의 조형성도 돋보이는 작품들이다. '옛날 옛적에' 연작을 비롯해 흐릿해져 가는 기억 속 잔상을 포착한 '회상' 시리즈 등을 선보인다.

김씨는 조선대 미대와 동 대학원 출신으로 16차례의 개인전, 살롱 도톤느 한국화 특별전, 2002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등에 참가했다. 대한민국 미술대전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 조선대 미대 학장 등을 거쳐 현재 우리 민족문화예술 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다.

한편 이번 아트페어는 이우환, 김수자, 박병일, 남은정, 박미진, 이철희씨 등 국내외 작가 135명의 회화, 조각, 설치 영상 등 1천800여점의 작품을 전시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독서의 계절, 책의 향기에 젖어보자"

전남대 제3회 인문주간 행사
어린이 위한 책 잔치도 열려

독서의 계절을 맞아 마음의 양식을 살찌우고 책의 향기에 젖어보는 것은 어떨까.

인문학의 향연인 제3회 인문주간 행사가 '일상으로서의 인문학'을 주제로 광주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열린다.

인문주간은 지난 2006년 전국 93개 대학의 인문대학장들의 '인문학의 위기' 선언과 함께 인문학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시작된 행사다.

전남대 인문대학·인문학 연구소와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는 한국학술진흥재단과 함께 6~12일까지 인문학 관련 강연, 전시회, 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다문화 현실과 우리 인문학'을 주제로 한 학술회의(인문대 1호관·6일 오후 2시)를 시작으로 진보논객으로 꼽히는 진중권 문화평론가(인문대 2호관·6일 오후 4시 30분)와 국문, 영문, 독문, 불문, 중문, 일문, 사학, 철학 등 각 분야 전공교수들이 '우리시대의 인문강의'를 주제로 릴레이 강연(인문대 1호관·6~10일 오후 2시부터)에 나선다. 또 행사 기간 동안 전남대 도서관 본관 2층 로비에서는 우수 학술 도서 전시회인 '책의 생명력 展'도 열린다.

민들레 소극장에서는 극단 토박이가 교육극 '죽기살기'(7, 8일 저녁 7시)를 무대에 올리며 전남대 인문대에서는 각 지역 사투리 연구자들이 모여 '지역언어 토크쇼'(9일 오후5시)를 진행한다.

이밖에 '인문산책과 숲 속 음악회'(5·18기념공원·11일 오후3시), '책 읽는 가족 초청 책 이야기'(예술의 거리 '뜰 방'·10일 오후 5시)도 열린다. 문의 062-530-3119, 062-228-6998.

어린이들을 위한 책 잔치도 열린다. 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가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11월 23일까지 광주를 비롯해 전국의 10개 지역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과 함께 '전국어린이책 잔치 마당'을 열고 있다.

광주 아이숲어린이도서관은 오는 10월 18일 '도서관에는 책이 있다, 놀이가 있다'를 주제로 전시를 비롯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문의 062-652-1279.

광주시서구문화센터는 오는 11일 고창 미당 서정주 문학관에서 '가족독서문학기행'을 연다.

'한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문학기행에서는 미당문학관을 비롯해 고창읍성인 모양성 순례도 함께 진행된다. 1인당 참가비는 2만원. 문의 062-654-4000.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파아노듀오 연주회 ▶6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제 36회 파아노듀오 연주회가 오는 6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광주피아노듀오협회(회장 김명·사진)가 주최하는 이번 음악회에는 특히 박순방 제주대 음악학과 교수 등 제주 지역 피아니스트들이 함께 참여한다.

연주 레퍼토리는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 생상의 '스케르조 작품 87', 생상스의 '서곡과 론도 카프리치오 작품 28', 그랭거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포기와 베스' 주제 환상곡' 등이다.

연주자는 광주의 이금주·한숙경·정환숙·박행숙·서재옥·강현철씨, 제주의 장진경·박동연·신향아씨다. 문의 018-640-387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해설이 있는 화요 음악회 ▶7일 11시 광주문예회관

광주시립교향악단이 매월 둘째주 화요일 개최하는 '해설이 있는 화요 음악회'가 오는 7일 오전 11시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15번째 맞는 이번 음악회에서는 임흥규 부지휘자의 해설로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와 엘가의 '사랑의 인사' 등을 들려준다.

또 소프라노 유형민〈사진 왼쪽〉씨와 테너 강동명〈사진 오른쪽〉씨를 초청해 최영섭 곡 '그리운 금강산', 이흥렬 곡 '꽃구름 속에' 등 가곡과 푸치니의 오페라 '리골레토' 중 '여자의 마음', 이탈리아 가곡 '오 솔레미오' 등을 선사한다. 무료 관람. 문의 062-524-5086.

/김미은기자 mekim@

'마법천자문' 시리즈 텐밀리언셀러 등극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한자학습만화 '마법천자문' 시리즈가 '텐밀리언셀러'로 등극했다.

출판사 아울북은 2003년 11월 1권 '불어라 바람 풍 風'이 출간된 이후 현재까지 총 16권이 출간된 '마법천자문' 시리즈가 최근 판매부수 1천만부를 돌파했다고 1일 밝혔다.

출판사측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지금까지 1천만 부를 돌파한 도서는 '그리스 로마 신화', '해리포터', 'Why' 시리즈 등 세 종이다.

총 20권으로 기획된 '마법천자문'은 오는 11월 17권을 선보일 예정이며 내년에는 극장판 애니메이션과 온라인 게임 출시도 준비 중이라고 출판사는 밝혔다. /연합뉴스